



초 | 등 | 부 | 터 EBS



만점왕

예습, 복습, 숙제까지 해결되는 교과서 완전 학습서



4-1
국어

인터넷·모바일·TV
무로 강의 제공





오빠는 책을 보면서 재미있어 하는데 동생은 그 책이 재미없나 보네요. 같은 책을 보면서도 서로 생각이나 느낌이 다른가 봐요.

이제, 1단원에서는 시나 이야기를 읽고 서로의 생각이나 느낌을 나누어 볼 거예요. 친구들의 서로 다른 생각을 들어 보고 내 생각도 표현해 봐요.

1 생각과 느낌을 나누어요



단원 학습 목표

20쪽 단원 정리 학습에서 더 자세히 공부해 보세요.

1. 시를 읽고 생각이나 느낌을 나눌 수 있습니다.

- 장면을 떠올리며 시를 읽어 봅니다.
- 시에 등장하는 인물의 마음을 생각하며 실감 나게 읽어 봅니다.
- 시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해 봅니다.

2. 이야기를 읽고 생각이나 느낌을 나눌 수 있습니다.

- 인물의 마음을 생각하며 이야기를 읽어 봅니다.
- 인물의 말이나 행동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나누어 봅니다.
- 일어난 일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말해 봅니다.

단원 진도 체크

회차	학습 내용		진도 체크
1차	단원 열기	단원 학습 내용 미리 보고 목표 확인하기	✓
	교과서 내용 학습	생각이나 느낌이 서로 다른 까닭 말하기 / 「꽃씨」 / 「등 굽은 나무」	✓
2차	교과서 내용 학습	「가훈 속에 담긴 뜻」	✓
3차	교과서 내용 학습	「의심」	✓
4차	교과서 내용 학습	국어 활동 학습하기	✓
	교과서 문제 확인	교과서 문제 학습하며 학교 숙제 해결하기	✓
5차	단원 정리 학습	단원 학습 내용 정리하기	✓
	단원 확인 평가	확인 평가를 통한 단원 학습 상황 파악하기	✓

해당 부분을 공부하고 나서 ✓표를 하세요.

교과서 내용 학습

국어 32~33쪽 내용

학습 목표 ▶ 생각이나 느낌이 서로 다른 까닭 말하기

국어 32~33쪽

[01~02] 다음 그림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01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는 그림을 무엇으로 보았을 지 알맞은 것을 찾아 선으로 이으시오.

- (1) 남자아이 • ① 커다란 잔
- (2) 여자아이 • ② 마주 보는 사람

중요 02 두 아이가 그림이 다르게 보이는 까닭을 두 가지 고르시오. (,)

- ① 그림을 자세히 보지 못했기 때문에
 ② 다른 사람이 그린 그림이기 때문에
 ③ 그림의 색깔은 같지만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④ 같은 그림이지만 느낀 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⑤ 같은 것을 보고도 상황에 따라 다르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03~04] 다음 그림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03 대화의 상황으로 알맞은 것에 ○표를 하시오.

- (1) 즐거웠던 일에 대한 경험 말하기 ()
 (2) 같은 일에 대해 생각이 달랐던 경험 말하기 ()

04 ㉠에서 '나'와 친구는 같은 영화의 주인공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 쓰시오.

- (1) '나': ()
 (2) 친구: ()

서술형

05 오른쪽 그림을 보고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보기와 같이 쓰시오.



보기

사람들이 한가롭게 쉬고 있는 모습이 평화로워 보인다.

도움말 그림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에 대한 느낌을 떠올리고, 그런 느낌이 드는 까닭을 생각해 봅니다.



꽃씨

학습 목표 ▶ 생각이나 느낌이 서로 다른 까닭 말하기

국어 34~35쪽

1연 물래

겨울을 녹이면서

봄비가 내려와 [★]앞으먼
봄이 되어 꽃씨가 싹을 틔울 때가 됨.

2연 [★]꽃씨는

땅속에 살짝 돌아누우며

^{싹을 틔우려고}
눈을 뜹니다.
겨울 동안 잠을 자던 꽃씨가 깨어나서

3연 봄을 기다리는 아이들은

쏘옥

손가락을 집어넣어 봄니다.
아이들이 한 행동

4연 꽃씨는 저쪽에서

고개를 **빠꼼**
꽃씨가 싹을 틔워 나오는 모습을
알밉게 숨겨 두었던

㉠ **파란** 손을 내밉니다.

★ 바르게 쓰기

앞으먼 (○)	안즈먼 (×)
------------	------------

★ 바르게 읽기

[꽃씨] (○)	[꼬씨] (×)
-------------	-------------

- 글의 종류: 시
- 글쓴이: 김완기
- 글의 특징: 봄이 되어 꽃씨가 싹을 틔우는 모습을 노래한 시입니다.

■ 시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이 서로 다른 까닭

- 시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르게 생각했기 때문에
- 사람마다 생각이 달라 재미를 느낀 부분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날말 사전

빠꼼 살며시 문 따위를 조금 여는 모양. 예 문을 열고 고개를 빠꼼 내밀었습니다.

알밉게 말이나 행동이 약빠르고 밉게. 예 동생은 알밉게 맛있는 것을 먼저 먹었습니다.

06 이 시는 어느 계절을 표현하였습니까? ()

- ① 봄 ② 여름
③ 가을 ④ 겨울
⑤ 늦가을

09 ㉠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 ① 꽃씨 ② 나무 ③ 새싹
④ 봄비 ⑤ 땅속

07 땅속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아이들의 마음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

- ① 꽃을 꺾으려는 마음
② 봄을 기다리는 마음
③ 봄비를 맞으려는 마음
④ 꽃씨를 꺼내려는 마음
⑤ 소꿉놀이를 하고 싶은 마음

08 아이들이 땅속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보는 모습을 흉내 내는 말을 찾아 쓰시오.

()



다음과 같이 같은 시를 읽고 시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이 서로 다른 까닭으로 알맞은 것에 ○표를 하시오.



- (1) 시를 읽고 재미를 느낀 점이 달랐기 때문이다. ()
- (2) 시 속에 일어나는 일을 서로 비슷하게 생각했기 때문이다. ()

등 굽은 나무

학습 목표 ▶ 시를 읽고 생각이나 느낌 나누기

국어 36~39쪽

- 글의 종류: 시
- 글쓴이: 김철순
- 글의 특징: 운동장에서 혼자 나무를 올라타며 놀았던 경험을 노래한 시입니다.

■ 같은 시 「등 굽은 나무」를 읽고 생각이나 느낌이 다른 까닭

- 「등 굽은 나무」를 보고 떠올린 생각이나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 등 굽은 나무를 할머니나 할아버지처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 「등 굽은 나무」를 읽고 시인의 생각이나 상상을 다르게 느끼기 때문에

날말 사전

네거리 한 지점에서 길이 네 방향으로 갈라져 나간 곳.

예 네거리 건널목에서 친구를 만났습니다.

1연 텅 빈 운동장을

혼자 걸어 나오는데

『운동장가에 있던 나무가

등을 구부리며

말타기놀이 하잔다.』

『』: 나무를 말이라고 생각함.

얼른 올라타라고

등을 내민다

2연 내가 올라타자

나무에
따그닥따그닥

달린다

학교 앞 문방구를 지나서

말을 타고 간 곳 ①

네거리를 지나서

말을 타고 간 곳 ②

우리 집을 지나서

말을 타고 간 곳 ③

달린다

★ 바르게 쓰기

있었는데 (○)	있었는데 (×)
-------------	-------------

3연 달리고 또 달린다

차보다 빠르다

어, 어, 어,

구름 위를 달린다

말을 타고 구름 위를 달리는 상상을 함.

비행기보다 빠르다

저 밑의 집들이

점점 작게 보인다

4연 “성민아, 뭐 해?”

5연 은찬이가 부르는 소리에

말은 그만

말을 타고 여기저기를 다니는 상상이 끝나서

걸음을 뚝, 멈춘다

6연 아깝다,

달나라까지도 갈 수 있었는데

아깝게 생각한 까닭

11 성민이는 어디에 올라탔는지 쓰시오.

()

12 성민이는 나무를 무엇이라고 생각했습니까?

()

- ① 말
- ② 로켓
- ③ 구름
- ④ 자동차
- ⑤ 비행기

중요

13

이 시를 읽고 생각이나 느낌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하려고 합니다.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

- ① 오행시 짓기
- ② 몸으로 표현하기
- ③ 그림으로 표현하기
- ④ 시의 내용 파악하기
- ⑤ 인물이 되어 말하기

사술형

14

이 시를 읽고 성민이가 되어 가 보고 싶은 곳을 쓰시오.

도움말 성민이는 말을 타고 있는 것을 상상하고 있으므로, 말을 타고 가 보고 싶은 곳을 자유롭게 씁니다.



- 글의 종류: 이야기
- 글쓴이: 조은정

- 글의 내용: 최 부잣집 도령 준은 할아버지가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모습을 알게 되면서 가훈을 마음속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중심 내용 옛날 경주에 재산도 마음도 어마어마한 최 부자가 살았습니다.

1 옛날 옛적 경주에 최씨 성을 가진 아주 큰 부자가 살았습니다. 일 년에 쌀이 만 석 정도 나올 만큼의 많은 논을 가진 큰 부자였지요.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또 그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부터 대대로 부자였습니다. 곳간도 어마어마하게 크고, 논도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 다. 부리는 하인도, 찾아오는 손님도, 아무튼 모든 것 이 다 어마어마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어마어마했던 것은 바로 최씨 부자의 마음이었습니다.

중심 내용 최 부잣집 도령들은 아침마다 가훈을 쓰는데, 도령 준이 종이에 낙서를 하다가 할아버지에게 혼나고는 곳간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2 최 부잣집 도령들은 매일 아침마다 사랑채에서 붓 결혼하지 않은 종각을 높여 부르는 말. 손님을 접대하는 곳. 글씨로 가훈을 씁니다.

① “너 이놈, 종이를 아낄 줄 모르고 이렇게 함부로 쓰다니!”

아침부터 최 부잣집 도령 준이 할아버지에게 야단

날말 사전

가훈(家 집 가, 訓 가르칠 훈) 한 집안의 조상이나 어른이 자손들에게 일러 주는 가르침.

맞고 있습니다. 종이에 낙서를 하다가 할아버지에게 들킨 것이지요.

“대감마님, 준 도련님이 안 계시는데요.”

해가 뉘엿뉘엿 지는데, 준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해가 곧 지려고 산이나 지평선 너머로 조금씩 차츰 넘어가는 모양. 인들이 안채와 사랑채를 다 뒤져도 준은 어디에도 없 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아침에 준을 혼낸 것이 마음에 준이 할아버지께 야단맞고 사라진 것 같아서 걸렸습니다.

‘설마 저 곳간에 있을까?’

할아버지는 곳간 안을 살펴보았습니다. 준은 곳간 **빼꼭히** 쌓인 쌀가마니 사이에서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 습니다.

“녀석도 참.” / 할아버지는 준을 방에 눕혔습니다.

중심 내용 이튿날 화가 덜 풀린 준은 할아버지가 손님들과 이야기하는 틈을 타 붓글씨 쓰는 것을 내뽕개치고 논으로 놀러 나갔습니다.

3 이튿날 늦잠을 잔 준은 혈레벌떡 사랑채로 갔습니 그 다음날 가훈을 쓰는 시간이 늦어서 다. 할아버지는 준이 늦은 것을 애써 모른 체했습니다.

안채 한 집 안에 안팎 두 채 이상의 집이 있을 때, 안에 있는 집채.
빼꼭히 사람이나 물건이 어떤 공간에 빈틈없이 꽉 찬 모양.

15 최 부잣집 도령들은 매일 아침마다 사랑채에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

- ① 세수 ② 글공부 ③ 투호놀이
④ 정리정돈 ⑤ 가훈 쓰기

16 준이 할아버지께 야단을 맞은 까닭은 무엇입니 까? ()

- ① 가훈을 잘 못 써서
② 곳간에서 잠을 자서
③ 사랑채에 늦게 와서
④ 종이에 낙서를 하여서
⑤ 붓글씨를 쓰고 정리를 하지 않아서

중요
17

①을 읽고 친구들이 다음과 같이 대화를 했습니 다. 알맞게 대화하지 못한 친구의 이름을 쓰시오.

진혁: 손자에게 어릴 때부터 아끼는 습관을 가르쳐 주기 위해 할아버지께서 엄하게 말씀하신 것 같아.

은수: 그렇구나. 나는 할아버지께서 좀 더 친절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준이 말을 더 잘 듣지 않았을까 생각했는데.

현지: 그런데 너희들은 왜 같은 내용을 읽고 다른 생각을 하니? 같은 내용을 읽으면 생각도 같아야 하는 거 아닌가?

()

어제 일에 화가 덜 풀린 준은 입을 주욱 내밀고 붓글씨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사랑채는 손님으로 북적였습니다. 할아버지는 항상 하인들에게 정성껏 음식을 차려 손님을 맞게 했습니다. 준은 먹어 보지도 못한 귀하다귀한 마른 청어도 내놓았지요. 손님들에게만 맛있는 것을 주는 할아버지가 조금 **아속했습니다.**
준에게는 종이를 아낄 줄 모른다고 하면서 손님들만 챙기는 것 같아서
 ㉠ 준은 할아버지가 손님들과 이야기하는 틈을 타 붓글씨 쓰는 것을 내뺏게치고 논으로 놀러 나갔습니다. 마을 아이들이 “흰죽 논, 흰죽 논.” 하면서 논 사이를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흥년에는 흰죽 한 끼 얻어먹고 논을 팔아넘긴다고 해서 흰죽 논이라는 말이 생겨났지요.

★ 바르게 쓰기

내뺏게치고	내뺏게치고
(○)	(×)

★ 바르게 읽기

[굵고]	[굵고]
(○)	(×)

낱말 사전

아속했습니다 따뜻한 정이 없이 쌀쌀하고 인정이 없는 행동을 한 사람이 섭섭하게 여겨져 언짢았습니다.

중심 내용 농부는 준에게 논을 헐값으로 사지 않고, 굶고 있는 사람에게 죽을 끓여 먹이며, 헐벗은 이에게 옷을 지어 준 할아버지를 칭찬하였습니다.

4 “아이고! 최 부잣집 도련님 아니십니까? 이 근방에는 흰죽 논이 없습죠. 대감마님께서 올해같이 **논이 헐값**일 때는 논을 사지 않으신답니다. 이거 정말 감사할 노릇입죠.” / 농부는 하던 일을 멈추고 논에서 나와 준에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한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죠. 큰 흥년이 들어 굶어 죽는 사람이 허다했는데, 대감마님께서 **곳간을 열고 굶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을 끓여 먹이라고** 했습죠.”

농부는 낫을 내려놓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디 그것뿐이겠습니까? **헐벗은 이에게는 옷까지 지어 입혔습죠.**”

하인들이 바깥마당에 큰솥을 걸고 연일 죽을 끓이는 집에서 끓인 죽들이 굶고 있는 사람을 위한 것임을 알게 된 모습이 준의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할아버지를 칭찬하는 농부의 말에 준은 우쭐해졌습니다.

헐값 그 물건의 원래 가격보다 훨씬 싼 값.

예 딸기가 한두 개 상해서 헐값에 판매되었습니다.

18 준이 할아버지를 아속하게 생각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

- ① 하인들에게 무섭게 대해서
- ② 손님들을 잘 챙기지 않아서
- ③ 귀하다 귀한 음식을 혼자 먹어서
- ④ 손님들에게만 맛있는 것을 주어서
- ⑤ 도령들에게만 맛있는 것을 주어서

20 ‘흰죽 논’의 뜻으로 알맞은 것을 이 글에서 찾아 쓰시오.

()

21 최 부잣집 근방에 ‘흰죽 논’이라는 말이 없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

- ① 최 부잣집 곳간에 쌀이 많아서
- ② 최 부잣집 대감마님은 논이 필요 없어서
- ③ 최 부잣집 근방에는 흥년이 들지 않아서
- ④ 최 부잣집 근방에는 팔 수 있는 논이 없어서
- ⑤ 최 부잣집 대감마님은 논이 헐값이면 사지 않아서

서술형
19

㉠ ‘ㄹ’ 부분에 나타난 인물의 행동에 대한 생각이 나 느낌을 정리하여 쓰시오.

도움말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며 생각이나 느낌을 정리합니다.



중심 내용 준은 작년에 혈값에 생선을 사 온 하인이 혼이 난 뒤로 장사치들이 좋은 물건을 가지고 찾아온 일이 생각났습니다.

5 준은 문득 작년 이맘때 일이 생각났습니다. 한 하인이 장사가 끝날 때쯤 생선 가게에 가서 혈값에 청어를 사 왔다가 할아버지에게 **호되게** 혼이 났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선행에 대한 농부의 말을 듣고 혈값으로 물건을 사지 않는 할아버지를 떠올림.

① “물건을 살 때는 아침에 가서 제값을 주고 사 오라고 했거늘 어찌 끝날 때쯤 혈값을 주고 사 오느냐? 혈값에 생선을 넘기는 생선 장수의 마음을 헤아릴 줄 모른단 말이나?”

그 일이 있는 후 장사치들은 너도나도 좋은 물건들을 가지고 **최 부잣집 대감이 물건 값을 제대로 쳐주어서** 찾아오게 되었지요.

중심 내용 밤에 제사가 끝나고 나서 전쟁터에서 함께 싸운 하인들의 제사가 시작되었으며, 준은 그것을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6 할아버지에게 화를 냈던 준은 슬며시 부끄러워졌습니다. 준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할아버지는 제사를 준비하느라 바빴습니다. 밤이 되어 제사가 시작되었습니다.

★ 바르게 쓰기

훌륭한 (○)	훌륭한 (×)
------------	------------

날말 사전

호되게 매우 심하게.

예 동생과 싸워서 엄마한테 호되게 혼났습니다.

그런데 제사가 끝나자 **㉠** 또 다른 제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왜 제사를 또 지내지?’

할아버지가 절을 하고, 아버지도 절을 했습니다. 준은 **영문**도 모른 채 절을 했습니다.

절을 한 뒤에 준이 하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이건 누구 제사지?”

“모르셨습니까? 이 제사는 장군이셨던 **윗대 대감마**님과 전쟁터에서 함께 싸우고, 끝까지 그 곁을 떠나지 않았던 하인들의 제사입죠. 하인들의 제사까지

지내 주는 집은 **최 부잣집밖에 없을 겁니다요.**”

양반 사회에서 양반이 하인의 제사를 드리는 일은 거의 없음.

준은 양반인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죽은 하인들에게

절을 하는 것이 좀 이상하기는 했지만, 주인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하인들의 제사를 지내는 것은

★ 훌륭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문 일이 돌아가는 형편이나 그 까닭.

예 영문도 모르는 채 선물을 받았습시다.

22 한 하인이 혈값에 청어를 사 왔다가 할아버지에게 혼이 난 까닭은 무엇입니까? ()

- ① 좋은 물건을 찾아오지 못해서
- ② 생선 장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아서
- ③ 혈값에 생선을 사 오면 싱싱하지 않아서
- ④ 혈값에 생선을 넘기는 생선 장수에게 속아서
- ⑤ 끝날 즈음에 생선을 사면서 제값을 주고 와서

중요 23 ㉠ 부분을 읽고 인물의 말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알맞게 말한 친구의 이름을 쓰시오.

은진: 혈값으로 사 오지 못한 하인은 지체롭지 못했던 것 같아.

준수: 생선 장수의 마음을 헤아리라는 말을 통해 함께 살아가는 법을 말씀하신 것 같아.

()

24 ㉠은 누구의 제사인지를 찾아 쓰시오.

()

25 준은 할아버지가 하인들의 제사까지 지내는 것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였습니까? ()

- ① 훌륭한 일이다.
- ② 자신에게는 관심이 없다.
- ③ 제사를 지내서는 안 된다.
- ④ 윗대 할아버지가 노할 것이다.
- ⑤ 하인을 챙기는 것이 속상하다.

중심 내용 다음 날 준은 가훈을 크게 썼으며, 할아버지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쌀을 담아 놓은 뒤횼을 보여 주었습니다.

7 다음 날 준은 아침 일찍 일어나 사랑채로 건너갔습
니다. 할아버지의 선행을 듣고 가훈을 쓰고 싶어한 준 어젯밤 늦게까지 제사를 지내 조금 피곤했지만
꼭 참았지요. 할아버지는 모처럼 일찍 사랑채에 건너
온 준이 신기한 듯 동그란 눈으로 준을 바라보았습니
다. 평소에 열심히 안 하던 준이라서 준은 다른 도령들과 함께 암전히 꿇어앉아 “사방
백 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라는 가훈을
크게 썼습니다. 최 부잣집 가훈

붓글씨를 쓴 뒤에 할아버지는 준과 다른 도령들에
게 희한하게 생긴 뒤횼을 보여 주었습니다.
매우 드물거나 신기하게.
“이 뒤횼은 가난한 사람들이나 지나가는 나그네가
쌀을 퍼 갈 수 있도록 만든 것이란다.” 뒤횼을 만든 까닭

준은 쌀을 한 줌 꺼내 보았습니다. 할아버지의 훈훈
한 마음이 전해지는 것 같았지요. 이웃을 도우려는 마음 최 부잣집에는 가난
한 사람들을 위해 쌀을 담아 놓은 뒤횼이 있었습니다.
쌀 삼천 석 가운데 천 석을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데
썼다고 합니다. 가훈을 실천하는 모습

날말 사전

뒤횼 쌀과 같은 곡식을 담아 두는 나무로 만든 통.
예 뒤횼 안에 쌀이 가득 들었습니다.

중심 내용 준은 마을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할아버지가 자랑스러웠고, 할아
버지가 가르쳐 주신 가훈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8 그때 아랫마을에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대감마님! 아랫마을에 논이 하나 나왔는데, 대감마
님께서 사시면 어떨까요?”

마을 사람들은 어디에선가 팔 땅이 나오면 할아버
지에게 사라고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쌀이 만 석 이상
곳간에 쌓이면 마을 사람들이 할아버지에게 땅을 팔려는 까닭 농부들이 최 부잣집의 논밭을 사용하
고 내는 돈을 조금만 받기 때문이었지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할아버지가 땅을 사면 오히려 좋아했습니다.

준은 할아버지가 무척 자랑스러웠습니다. 다른 사
람들에게 베풀고, 잘 살도록 도와주며 아랫사람들에
게도 나누어 줄 줄 아는 할아버지가 참 좋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자랑스러운 까닭

‘나도 꼭 할아버지처럼 되어야지.’

할아버지를 본받고 싶은 마음
준은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가훈을 다시 한번 마
음속 깊이 새겼습니다. ★

★ 바르게 쓰기

새겼습니다 (○)	세겼습니다 (×)
--------------	--------------

줌 수량을 세는 말 뒤에 쓰이는 말, 주먹의 준말.
예 흙 한 줌을 화분에 더 넣었습니다.

26 할아버지가 뒤횼을 만든 까닭은 무엇입니까?
()

- ① 가훈이 귀하여 보관하려고
- ② 귀중한 물건을 숨겨 두려고
- ③ 가족들의 식량을 미리 넣어 두려고
- ④ 가난한 사람들이 퍼 갈 쌀을 담아 놓으려고
- ⑤ 쌀을 나누어 준 가난한 사람의 명단을 적어
놓으려고

27 마을 사람들이 할아버지가 땅을 사면 좋아했던
까닭을 찾아 쓰시오.
()

중요 28 준이 할아버지가 자랑스러웠던 까닭을 두 가지
고르시오. (,)

- ① 가훈을 붓글씨로 잘 쓰셔서
- ② 할아버지의 재산이 어마어마해서
- ③ 아랫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줄 알아서
- ④ 아랫마을 사람까지 찾아와 논을 사 가서
- ⑤ 사람들에게 베풀고 잘 살도록 도와주어서

서술형

29 최 부잣집 가훈에 담긴 의미는 무엇일지 쓰시오.

도움말 최 부잣집 가훈은 “사방 백 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 글의 종류: 이야기
- 글쓴이: 현덕

- 글의 내용: 유리구슬 한 개를 잃어버린 노마는 기동이를 의심하다가 유리구슬을 찾게 되어 얼굴이 벌게지고 말았습니다.

중심 내용 노마는 유리구슬 한 개를 잃어버리고 아무리 찾아도 없자 누가 집어갔다고 생각했습니다.

1 어쩌다가 노마는 유리구슬 한 개를 잃어버렸습니다. 아주 이쁘게 생긴 파란 구슬인데요, 어디서 어떻게 노마가 잃어버린 유리구슬 하다 잃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토끼처럼 짹짹 뛰고 놀다가 흘렸나 하고 우물둔덕 에도 가 보았습니다. 거기에도 없습니다. 영이하고 나뭇잎을 줍다가 흘렸나 하고 집 뒤 버드나무 밑에도 가 보았습니다. 거기에도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연기처럼 아주 없어진 듯이 구슬은 간 데를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유리구슬은 연기나 그런 것이 아니니까 아주 없어질 리는 없는데요, 이렇게 아무리 찾아도 없을

때엔 아마 누가 집어서 제 것처럼 ★ 바르게 읽기
자신의 구슬을 누가 집어갔다고 생각함.
가졌나 봅니다.

[나문님] (○) [나무입] (×)

낱말 사전

우물둔덕 우물 둘레의 작은 둑 모양으로 된 곳.

예 우물둔덕에 걸터앉아 물을 길었습니다.

중심 내용 그러다가 노마는 기동이를 만나고, 기동이를 의심하였습니다.

2 그러다가 노마는 담 모퉁이에서 기동이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노마는 기동이 아래위를 보다가 입을 열어 물었습니다.

“너, 내 구슬 봤니?” / “무슨 구슬 말야?”

“파란 유리구슬 말야.” / “난 못 봤다.”

그러나 노마는 그 말을 정말로 듣지 않나 봅니다.
기동이의 말을 믿지 않음.

㉠ 여전히 기동이 조끼 주머니를 보고, 두 손을 보고
기동이의 조끼 주머니 속에 있는 것 같아서
합니다.

그러다가 노마는 입을 열어 또 물었습니다.

㉡ “너, 구슬 가진 것 좀 보자.”

“그건 봐 뭇 해.” / “보면 어때.” / “봐 뭇 해.”

하고 기동이는 조끼 주머니를 손으로 가립니다.

모퉁이 구부러지거나 꺾어져 돌아간 자리.

예 학교 앞 모퉁이에 있는 문방구에서 공책을 샀습니다.

30 노마는 구슬을 잃어버린 것을 알고 어떻게 하였습니다니까? ()

- ① 구슬을 사러 갔다.
- ② 기동이를 찾으러 다녔다.
- ③ 기동이의 구슬을 가져갔다.
- ④ 구슬을 찾으러 돌아다녔다.
- ⑤ 영이에게 구슬을 달라고 했다.

32 노마가 ㉠과 같이 행동한 까닭에 ○표를 하시오.

- (1) 기동이의 구슬이 부러워서 ()
- (2) 기동이가 도와주기를 바라서 ()
- (3) 기동이의 말을 믿을 수가 없어서 ()

33 ㉡의 말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알맞게 말한 것에 ○표를, 알맞지 않은 것에 △표를 하시오.

- (1) 친구의 구슬을 가지고 있으면서 모르는 척 하는 것은 나쁜 일이다. ()
- (2) 구슬을 잃어버린 마음은 이해하지만 자꾸 친구를 의심하면 안 된다. ()

중요

31

잃어버린 구슬을 찾아다니는 일에 대한 노마의 마음으로 알맞은 것의 기호를 쓰시오.

- ㉢ 기동이에게 미안한 마음
- ㉣ 잃어버린 구슬을 다시 가지고 싶은 마음

()

정말 기동이가 그 구슬을 얻어 제 것처럼 가졌나 봅
니다. 아니면 **선선하게** 보이지 못할 게 뭘니까.

노마가 더욱 의심이 나는 까닭

노마는 더욱 의심이 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잃어버린 구슬 네가 집었지?”

“언제 네 구슬을 내가 집었어?”

“그럼 보여 주지 못할 게 뭐야?”

조끼 주머니에 있는 구슬을 보여 주지 못할 게

그제는 기동이기도 하는 수 없나 봅니다. “자아.” 하고
조끼 주머니에서 구슬을 꺼내 보입니다. 하나를 꺼냈
니다. 둘을 꺼냅니다. 셋, 다섯도 넘습니다. 모두 똑
같은 모양, 똑같은 빛깔입니다. 노마가 잃어버린, 모
두 똑같은 그런 파란 유리구슬입니다.
노마가 잃어버린 구슬과 같은 구슬

어쩌면 그중에 노마가 잃어버린 구슬이 섞여 있을
성싶습니다. 그래서 노마는,

“너, 이 구슬 다 어디서 났니?”

“어디서 나긴 어디서 나. 다섯 개는 가게서 사고 한

날말 사전

선선하게 성질이나 태도가 까다롭지 않고 주저함이 없게.

예 윤서는 선선하게 내 말을 따라 주었습니다.

개는 영이가 준 건데, 뭐.”

“거짓부렁. 영이가 널 구슬을 왜 줬?”

거짓말

“그럼 영이한테 가서 물어봐.”

노마와 기동이가 영이를 찾아가기로 한 까닭

중심 내용 노마와 기동이는 영이를 찾아가다가 노마가 잃어버린 구슬을 찾게
되었고, 기동이를 의심한 노마는 얼굴이 벌게졌습니다.

3 그래서 노마와 기동이는 영이를 찾아가기로 했습
니다. 담 모퉁이를 돌아서 골목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조그만 **도랑** 앞엘 왔습니다.

매우 좁고 작은 개울.

그런데 그 **도랑물** 속에 무엇이 햇빛에 번쩍하는 것
이 있습니다. 유리구슬 같습니다. 정말 유리구슬입니
다. 바로 노마가 잃어버린 그 구슬입니다.
노마가 잃어버린 구슬을 발견함.

① “네 구슬 여기다 두고, 왜 남보고 집었다고 그러
는 거야.”

하고, 기동이가 바로 **올러메는데도** 할 말이 없습니다.

기동이의 말이 다 맞아서

그만 노마는 얼굴이 벌게지고

기동이를 의심한 것이 미안해서

말았습니다.

★ 바르게 쓰기

잃어버린 (○)	잊어버린 (×)
-------------	-------------

올러메는데도 위협적인 말이나 행동으로 올려서 남을 억누르는데도.

예 민서는 규찬이 올러메는데도 굽히지 않았습니다.

34 노마가 잃어버린 구슬을 찾았을 때의 마음으로 알 맞은 것을 두 가지 고르시오. (,)

- ① 구슬을 찾아 기쁜 마음
- ② 기동이를 의심하는 마음
- ③ 기동이에게 미안한 마음
- ④ 기동이 말이 틀리기 바라는 마음
- ⑤ 기동이가 구슬을 내놓기 바라는 마음

서술형

35 자신이 노마라면 기동이가 ㉠과 같이 이야기했을 때 어떻게 말할지 쓰시오.

도움말 ㉠은 의심을 받던 기동이가 구슬을 찾은 노마에게 한
말입니다.

중요

36 노마가 기동이를 의심한 일에 대해 세진이와 우 정이가 한 다음 말에서 의견은 무엇인지 쓰시오.

세진: 노마가 친구를 의심한 것은 잘못입니다.
기동이 주머니에 구슬이 있지만 그 구슬이
노마의 것인지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정: 노마가 기동이를 의심하기는 했지만 안타
까운 마음에 저지른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소중한 여기는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에는 누구나 속상하기 때문입니다.

(1) 세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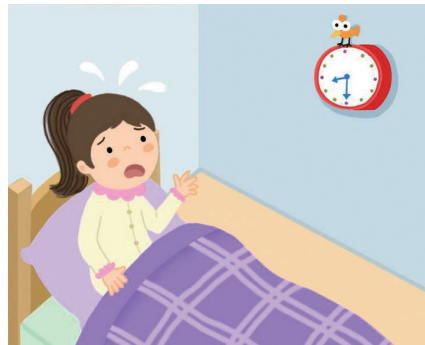
(2) 우정



옳은 표현 찾기



금방 (갈게, 갈게).



일찍 (일어날걸, 일어날걸).



'갈게'는 [갈게]로, '일어날걸'은 [이러날걸]로 소리 나지만, 소리 나는 대로 쓰지는 않습니다.



무엇을 (먹을가, 먹을까)?



왜 (늦을고, 늦을꼬)?



'먹을까?'나 '늦을꼬?'와 같이 묻는 말은 소리 나는 대로 씁니다.

바르게 쓴 낱말에 ○표를 하고 소리 내어 읽기

이 일은 내가 먼저 (할게), 할게).
[할게]

너도 같이 왔으면 (좋았을걸, 좋았을걸).
[조아쓸걸]

누가 여기를 (청소할가, 청소할까)?
[청소할까]

방이 왜 이리 (좁을고, 좁을꼬)?
[조블꼬]

• 활동 내용: 자주 혼동할 수 있는 표현 중 올바른 표현을 찾는 활동입니다. 발음은 비슷하게 나지만 묻는 말일 때만 소리 나는 대로 씁니다.

옳은 표현 예

일반 문장	금방 갈게. 일찍 일어날걸.
묻는 문장	무엇을 먹을까? 왜 늦을꼬?

확인 문제

※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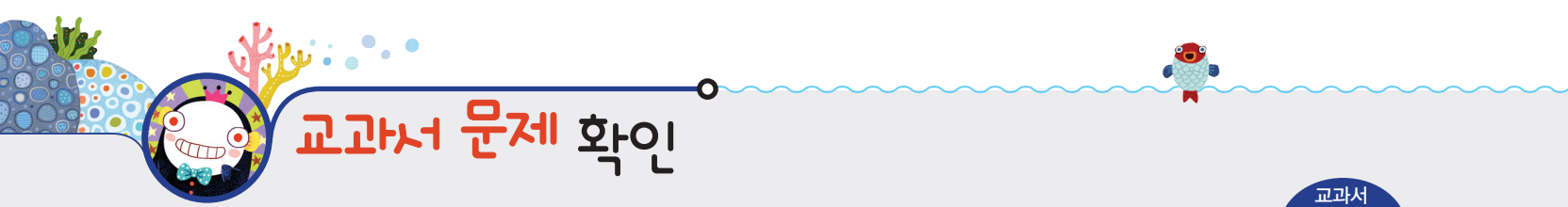
1. 다음 중 옳은 표현에 ○표를 하시오.

- (1) 일찍 일어날걸. ()
(2) 무엇을 먹을까? ()

2. 다음 중 바르게 읽은 것에 ○표를 하시오.

- (1) 이 일은 내가 먼저 할게.
[할게] ()
(2) 누가 여기를 청소할까?
[청소할까] ()

정답 1. (2) ○, 2. (2) ○



교과서 문제 확인

교과서
32~33쪽

교과서 32~33쪽

● 생각이나 느낌이 서로 다른 까닭 알아보기

- 남자아이는 그림을 무엇으로 보았을까요? 예 청록색 부분을 마주 보는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 여자아이는 그림을 무엇으로 보았을까요? 예 주황색 부분을 커다란 잔으로 보았습니다.
- 그림이 다르게 보인 까닭은 무엇일까요?
예 같은 것을 보고도 상황에 따라 다르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같은 그림이지만 느낀 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그림을 보고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말해 봅시다.
예 공원에서 즐겁게 나들이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행복했습니다.

교과서
35쪽

「꽃씨」

● 봄이 되어 꽃씨가 싹을 틔우는 모습을 노래한 시

- 「꽃씨」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이 서로 다른 까닭을 말해 봅시다.
예 '봄비가 내려와 앉는다'는 부분을 읽고 사람 같다고 느낀 친구도 있고, 봄비가 조금씩 내리는 것 같다고 생각한 친구도 있습니다. 시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르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재미를 느낀 부분이 서로 달랐습니다.

교과서
38쪽

「등 굽은 나무」

● 운동장에서 혼자 나무를 올라타며 놀았던 경험을 노래한 시

- 성민이는 어디에 올라탔나요? 예 나무에 올라탔습니다.
- 성민이는 나무를 무엇이라고 생각했나요? 예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 성민이가 상상 속에서 간 곳은 어디어디인가요? 예 학교 앞 문방구, 네거리, 성민이네 집, 구름 위입니다.

교과서
45쪽

「가혼 속에 담긴 뜻」

● 최 부잣집 도령 준이 할아버지가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모습을 알게 되면서 가혼을 마음속 깊이 새기게 된다는 내용의 이야기

- 「가혼 속에 담긴 뜻」을 읽고 인물의 말이나 행동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정리해 봅시다.

인물의 말이나 행동	생각이나 느낌
준은 할아버지가 손님들과 이야기하는 틈을 타 붓글씨 쓰는 것을 내팽개치고 논으로 놀러 나갔습니다.	예 준은 할아버지에게 서운한 마음을 핑계로 하라는 글공부 대신 놀러 간 것 같아.
예 할아버지 - “혈값에 생선을 넘기는 생선 장수의 마음을 헤아릴 줄 모른단 말이나?”	예 생선 장수의 마음을 헤아리라는 말을 통해 함께 살아가는 법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

- “사방 백 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라는 가훈의 의미에 대하여 말해 봅시다.
예 다른 사람의 불행을 그냥 넘기지 말고 도와주라는 뜻입니다. / 되도록 먼 곳의 사람들도 도와주라는 뜻입니다.

교과서
49~51쪽

「의심」

유리구슬 한 개를 잃어버린 노마는 기동이를 의심하다가 유리구슬을 찾게 되어 부끄러워하는 내용의 이야기

- 노마는 구슬을 잃어버린 것을 알고 어떻게 했나요? 예 구슬을 찾으러 돌아다녔습니다.
- 노마가 기동이에게 가지고 있는 구슬을 보여 달라고 한 까닭은 무엇인가요? 예 기동이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노마가 잃어버린 구슬은 어디에 있었나요? 예 도랑물 안에 있었습니다.
- 「의심」을 다시 읽고 일어난 일에 대한 노마의 마음을 정리해 봅시다.

일어난 일	노마의 마음
노마는 기동이에게 자신의 구슬을 가지고 있는지 캐물었다.	예 기동이를 의심하는 마음 / 기동이가 구슬을 내놓기를 바라는 마음
노마는 기동이와 함께 영이를 찾아 나섰다.	예 영이가 기동이에게 구슬을 주었는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 / 기동이의 말이 틀리기를 바라는 마음
노마는 도랑물 속에서 잃어버린 구슬을 보았다.	예 구슬을 찾아 기쁜 마음 / 기동이에게 미안한 마음

- 자신이 기동이나 노마라면 뭐라고 말했을까요?

노마: 너, 구슬 가진 것 좀 보자.

기동: 예 여기 봐. 비슷하게 보여도 이 가운데에서 네 것은 없어.

기동: 네 구슬 여기다 두고, 왜 남보고 집었다고 그러는 거야.

노마: 예 의심해서 미안해.

- 노마와 기동이의 행동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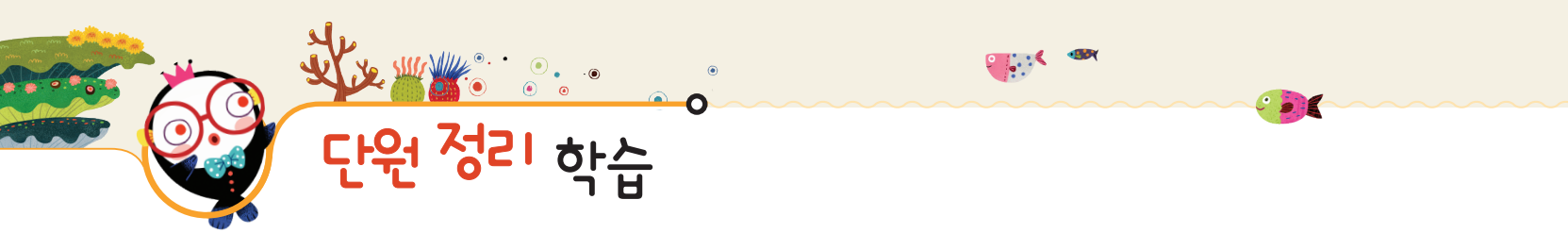
인물	행동	자신의 생각
노마	여전히 기동이의 조끼 주머니를 보고, 두 손을 보고 한다.	예 구슬을 잃어버린 마음은 이해하지만 자꾸 친구를 의심하면 안 된다.
기동	“자야.” 하고 조끼 주머니에서 구슬을 꺼내 보인다.	예 기동이는 아무런 잘못 없이 의심을 받아서 기분이 나빴겠지만 노마의 기분을 이해하고 자신의 구슬을 정확히 설명해 주는 것이 좋겠다.

- 노마가 기동이를 의심한 일에 대한 세진이와 우정이의 의견과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알아봅시다.

세진	의견	예 노마가 친구를 의심한 것은 잘못입니다.	우정	의견	예 노마가 기동이를 의심하기는 했지만 안타까운 마음에 저지른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까닭	예 기동이 주머니에 있는 구슬이 노마의 것 인지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까닭	예 자기가 소중한 여기는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에는 누구나 속상하기 때문입니다.

- 노마가 기동이를 의심한 일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말해 봅시다.

예 아무리 속이 상해도 친구를 의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원 정리 학습

핵심 1 시를 읽고 생각이나 느낌 나누기

1 시를 읽고 생각이나 느낌이 다른 까닭

- 시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르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재미를 느낀 부분이 서로 달랐습니다.



↳ 같은 시 「꽃씨」를 읽고 생각한 점이 서로 다릅니다.

2 시를 읽고 생각이나 느낌 나누기

- 시의 장면을 상상하며 읽어 보고, 시 속 인물의 느낌이 어떨지 이야기해 봅니다.
 - 시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해 봅니다.
- 예) 오행시 짓기, 몸으로 표현하기, 그림으로 표현하기, 인물이 되어 말하기

핵심 2 이야기를 읽고 생각이나 느낌 나누기

1 일어난 일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이 다른 까닭

- 각자 살아온 경험이나 체험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 좋아하는 것 등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2 이야기를 읽고 생각이나 느낌 나누기

- 일어난 일에 대한 인물의 마음을 생각합니다.
- 이야기에 나오는 인물의 말이나 행동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나누어 봅니다.
- 일어난 일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말해 봅니다.

↳ 일어난 일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말할 때에는 까닭과 함께 말합니다.

의견은 어떤 일이나 대상에 대한 생각이고, 까닭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원인이나 조건입니다.

예)

일어난 일	세진이의 생각	
노마가 기동이를 의심한 일	의견	노마가 친구를 의심한 것은 잘못입니다.
	까닭	기동이 주머니에 있는 구슬이 노마의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01 같은 일에 대한 생각이 달랐던 경험을 알맞게 말한 친구의 이름을 쓰시오.

라현: 나와 동생은 신나는 음악이 들리면 같이 춤을 춰.

형진: 나는 박물관의 어두운 전시실이 작품을 감상하기에 좋다고 생각했는데, 누나는 전시실이 더 밝으면 좋겠대.

()

[02~04] 다음 시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몰래
겨울을 녹이면서
봄비가 내려와 앉으면

꽃씨는
땅속에 살짝 돌아누우며
눈을 뜹니다.

봄을 기다리는 아이들은
쏘옥
손가락을 집어넣어 봅니다.

꽃씨는 저쪽에서
고개를 빠끔
알뜰게 숨겨 두었던
파란 손을 내밉니다.

02 꽃씨가 땅속에서 눈을 뜨는 때는 언제입니까? ()

- ① 겨울이 계속 될 때
- ② 겨울이 고개를 내밀 때
- ③ 봄비가 내려와 앉을 때
- ④ 아이들이 손가락을 집어넣을 때
- ⑤ 알뜰게 숨겨 두었던 파란 손을 내밀 때

03 이 시를 읽고 떠올릴 수 있는 장면은 무엇입니까? ()

- ① 겨울이 계속되는 모습
- ② 새싹이 돌아나는 모습
- ③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
- ④ 울창한 숲이 펼쳐지는 모습
- ⑤ 소나기를 맞은 싱그러운 풀잎의 모습

04 이 시를 읽고 생각이나 느낌을 알맞게 말한 것에 ○표를, 알맞지 않은 것에 △표를 하시오.

- (1) 봄비가 내려와 앉는다고 하니까 비가 사람 같이 느껴져. ()
- (2) 꽃씨를 아이들이 자라는 것처럼 생각한 것이 재미있어. ()
- (3) 아이들이 손가락을 땅속에 쑥 집어넣는다고 하니까 내가 흙을 만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 ()

05 같은 시를 읽고도 시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이 서로 다른 까닭은 무엇인지 쓰시오.

도움말 사람마다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경험을 갖고 있다는 것에 주의합니다.



[06~07] 다음 시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텅 빈 운동장을
혼자 걸어 나오는데
운동장가에 있던 나무가
등을 구부리며
말타기놀이 하잔다
얼른 올라타라고
등을 내민다

내가 올라타자
따그닥따그닥
달린다
학교 앞 문방구를 지나서
네거리를 지나서
우리 집을 지나서
달린다

06 말하는 이는 운동장가에 있는 나무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였는지 쓰시오.

()



07 이 시에서 말하는 이의 느낌이 어떨지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

- ① 나무에 올라타니 신나게 말을 타는 느낌이었을 것 같아.
- ② 학교 앞 문방구를 지나는 상상을 하면 재미있을 것 같아.
- ③ 네거리와 우리 집을 지나 달리는 상상을 하며 신났을 것 같아.
- ④ 혼자 선 나무가 같이 말타기놀이 하자고 이야기한 것을 상상했어.
- ⑤ 숲속에서 친구들과 재미있게 노는 것을 상상하며 즐거웠을 것 같아.

[08~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준은 문득 작년 이맘때 일이 생각났습니다. 한 하인이 장사가 끝날 때쯤 생선 가게에 가서 혈값에 청어를 사 왔다가 할아버지에게 호되게 혼이 났었습니다.

㉠ “물건을 살 때는 아침에 가서 제값을 주고 사 오라고 했거늘 어찌 끝날 때쯤 혈값을 주고 사 오느냐? 혈값에 생선을 넘기는 생선 장수의 마음을 헤아릴 줄 모른단 말이냐?”

그 일이 있은 후 장사치들은 너도나도 좋은 물건들을 가지고 최 부잣집을 찾아오게 되었지요.

(나) 준은 다른 도령들과 함께 암전히 꿰어앉아 “사방 백 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라는 가훈을 크게 썼습니다.

붓글씨를 쓴 뒤에 할아버지는 준과 다른 도령들에게 희한하게 생긴 뒤횈을 보여 주었습니다.

㉡ “이 뒤횈은 가난한 사람들이나 지나가는 나그네가 쌀을 퍼 갈 수 있도록 만든 것이란다.”

준은 쌀을 한 줌 꺼내 보았습니다. 할아버지의 훈훈한 마음이 전해지는 것 같았지요. 최 부잣집에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쌀을 담아 놓은 뒤횈이 있었습니다. 쌀 삼천 석 가운데 천 석을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데 썼다고 합니다.

08 하인이 할아버지에게 호되게 혼이 난 까닭으로 알맞은 것에 ○표를 하시오.

- (1) 생선을 잘못 사 와서 ()
- (2) 제값을 주고 청어를 사 와서 ()
- (3) 생선 장수의 마음을 헤아릴 줄 몰라서 ()

09 장사치들이 좋은 물건들을 가지고 최 부잣집에 온 까닭은 무엇입니까? ()

- ① 물건 값을 싸게 쳐주어서
- ② 혈값으로 물건을 팔 수 있어서
- ③ 물건 값을 제대로 받을 수 있어서
- ④ 최 부잣집 대감이 귀한 물건을 좋아해서
- ⑤ 최 부잣집에 물건 사려는 사람이 많아서



- 서술형**
10 ㉠의 할아버지 말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쓰시오.

도움말 먼저 할아버지의 말에 담긴 의미를 이해하고,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정리해 봅시다.

- 11** 최 부잣집 가훈은 무엇인지 쓰시오.
 ()

- 12** ㉡의 할아버지 말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알맞게 말한 친구의 이름을 쓰시오.

서은: 붓글씨를 아침마다 쓰게 하시는 할아버지는 너무 엄하신 것 같아.
 현민: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려는 할아버지의 깊은 뜻이 느껴졌어.

()

[13~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너, 이 구슬 다 어디서 났니?”
 “어디서 나긴 어디서 나. 다섯 개는 가게서 사고 한 개는 영이가 준 건데, 뭐.”
 “거짓부렁. 영이가 널 구슬을 왜 줬?”
 “그럼 영이한테 가서 물어봐.”
 그래서 노마와 기동이는 영이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담 모퉁이를 돌아서 골목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조그만 도랑 앞엘 왔습니다.
 그런데 그 도랑물 속에 무엇이 햇빛에 번쩍하는 것이 있습니다. 유리구슬 같습니다. 정말 유리구슬입니다. 바로 노마가 잃어버린 그 구슬입니다.
 “네 구슬 여기다 두고, 왜 남보고 집었다고 그러는 거야.”
 하고, 기동이가 바로 올려메는데도 할 말이 없습니다.

- 13** 기동이와 함께 영이를 찾아가기로 했을 때 노마의 마음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

- ① 기동이를 의심하는 마음
- ② 구슬을 찾아서 기쁜 마음
- ③ 기동이의 말이 틀리기를 바라는 마음
- ④ 기동이가 구슬을 내 놓기를 바라는 마음
- ⑤ 영이가 정말 구슬을 주었는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

- 14** 기동이가 올려메는데도 노마가 할 말이 없었던 까닭으로 알맞은 것에 ○표를 하시오.

- (1) 구슬을 찾아서 너무 기뻐서 ()
- (2) 기동이를 의심한 것이 미안해서 ()
- (3) 기동이에게 자신의 구슬이 있어서 ()

- 중요**
15 노마가 기동이를 의심한 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생각을 말하였습니다. 의견과 까닭으로 구분하여 각각 선으로 이으시오.

(1)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에는 누구나 속상하기 때문이다. • • ① 의견

(2) 노마가 기동이를 의심하기는 했지만 안타까움 마음에 저지른 실수라고 생각한다. • • ② 까닭